

추 모 | Condolence

장기인 전임회장 별세

지난 2월 25일, 향년 91세로



우리협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장기인(張起仁) 전임회장이 지난 2월 25일 향년 91세로 타계했다.

故 장기인 전임회장은 평생동안 건축계에 몸담아 오면서 건축인 후학양성과 선도적인 학술 활동으로 건축계발전과 권익신장에 헌신해온 원로 건축사이다. 또한 그 누구보다 건축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 대한건축사협회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통건축문화재 복원사업에도 헌신하여 귀한 자료를 수집, 실측 정리하였고 광화문, 수원성(화성), 창경궁, 경희궁 등의 궁궐건축복원과 사찰건축, 호암미술관, 한국 의집 등 수많은 전통 건축 작품을 남겼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거행된 대한건축사협회장(葬)에 준한 영결식에서는 우리협회 전임회장인 오운동 고문의 조사와 대한건축학회 명예회장인 윤장섭 교수의 추도사가 있었고,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모여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정을 나누었다.

장지는 파주 헤이리 옆 동화경모공원이다.

● 주요약력

- 1916. 평안북도 고성출생
- 1935.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 졸업(현 중앙고등학교)
- 1938. 경성공업고등학교 졸업(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1939~1945. 조선공영주식회사 건축과 근무(건축과장)
- 1946~1950.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교사
- 1953. 문교부 과학 기술 용어제정 건축본과 위원
- 1959. 한양대 외 다수대학 출강
- 1962. 상공부 표준국 건축부분 전문위원
- 1965. 대한건축사자격 심사위원
- 1966. 서울특별시 문화생(건설부문)
- 1967.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967. 광화문 복원공사 지도 및 전문위원
- 1968.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제정 위원장
- 1971. 대한건축학회상
- 1973.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시공기술 연구위원
- 1973. 건설부 농촌주택 관리구조개선 지문위원
- 1981. 대한건축사협회상
- 1992. 한국건축문화대상
- 1994. 대통령 표창
- 2002. 대한건축학회특별상 - 소우저작상
- 1950~2000. 삼성건축사사무소 운영

〈弔辭〉

삼가 故 장기인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애도의 정성을 영전에 드리나이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생전의 모습을 그리며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근대사의 한국건축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건축계에 남기신 그 업적과 발자취는 너무도 빛나고 너무도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 살아생전에 이 나라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인의 권익신장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신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존경이 깊었던 만큼 선생님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돌이켜 보건데, 선생님의 일생은 신념과 봉사로 일관된 실로 자랑스러운 삶이었으며, 평생을 깨끗한 지조와 불의에 맞서 굴하지 않는 의리로 살으셨습니다.

또한, 늘 청빈하고 봉사적이셨던 선생님의 생활과 삶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었고 선생님의 헌신적인 희생에 힘입어 오늘의 건축계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선생님의 육신은 속세에서 타계하셨습니다만, 그 영혼과 정신은 우리 건축사 모두의 가슴과 우리나라 건축계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지금 건축계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보여주신 고귀한 생전의 모습과 그 뜻을 받들어 우리 후배들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야말로 천명을 다하시고 이제 휴식에 들으셨으니, 선생님의 찬연한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삶의 역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빛나는 생애였음을 후학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천국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끼치신 덕은 영원히 우리협회와 후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하나님 은총과 평화 안에 고이 잠드소서

장기인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오운동



〈추도사〉

장기인 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의 서거를 추도하며

장기인(張起仁) 회장님은 1916년 평안북도 고성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1938년 경성 고등공업학교(현재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한 다음에 오늘까지 계속하여 우리나라 건축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은 건축공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건축문화재 연구가로서,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오로지 우리나라의 건축기술 발전과 한국전통 건축문화의 탐구를 위하여 초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을 본인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46년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교사로 있었을 때 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기인 선배님은 교육자로서 후배 양성에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건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본인은 장기인 선배님이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학구적인 생활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본인이 한국 및 동양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당시부터 은연중에 장기인 선배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회상해 보게 됩니다. 전 한양대학교 총장 이해성 교수 및 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유희준 교수는 그 당시부터 장기인 선생님의 애제자로서 계속하여 지도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장기인 회장님은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시작하면서 한국전통건축의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전통건축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여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양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양대, 고려대, 중앙대, 홍익대, 동국대 등에서 건축공학분야의 강사로 출강하여 후배 교육에 많은 힘을 써 왔었습니다.

1962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했을 때에는 최초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1967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1967년 말에는 건축공학분야 저술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대한건축학회 기술상, 1981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초평상), 2002년에는 대한건축학회 특별상(소우 저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은 일제 강점기에 말할뉘다시피 한 건축용어를 발굴, 수집, 정리하여 외래어 투성이었던 건축술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적산학' 및 '한국건축대계전집' 등 20여종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의 건축실무분야와 건축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집'에서 장기인 회장님의 미수 축하연을 개최하였을 때는 우리 후배들이 함께 참석하여 선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했던 일이 었그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 후에도 회장님은 꾸준히 지적활동을 계속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낙상과 실족으로 병고에 시달리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오늘 대한건축사협회장으로 거행되는 장기인 회장님의 영결식을 맞이하여, 회장님이 생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실하며 꾸준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운명하신 후에 장기인 회장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즐겁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안에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고 있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장기인 회장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 여생의 평안과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건축학회 명예회장 윤 장 석